작품집

사랑이 넘치는 땅

평 양 출 판 사

주체112(2023)

차 례

—시

불멸하라 위대한 전승 7.27이여!(시초) ………(3)

승리상엔 공화국기가 있다 ……………………(13)

사랑이 넘치는 곳에서(시초) …………………(16)

꽃다발을 받으시라 ……………………………(28)

사람을 뽑았어야지 ……………………………(31)

피할수 없는 숙명 ……………………………(33)

용서치 않으리라 전쟁광신자들을 ……………(35)

깨끗이 결산하리라 ……………………………(37)

—수필

명절에 없는 생각 ……………………………(39)

국기와 존엄에 대한 생각……………………(43)

새 거리에서 새 거리에로……………………(47)

행복의 사태 ……………………………………(52)

계절에 대한 생각 ……………………………………(57)
늘어나는 두 행렬을 두고…………………………(62)

—단편소설

판결 ……………………………………………………(66)

【시초】

불멸하라 위대한 전승 7.27이여!

령장과 열병광장

김 태 룡

우러러 출중함이 위대함이
존안에 빛발치는 거룩한 모습
전승의 열병식 사열하시던 그날처럼
여기 전승기념관에 원수복 입으시고
환하게 웃으신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하신 장군
아직 세상에 있어본적 없는
미제를 쳐이긴 전승의 열병광장에
이 나라 용사들을 정렬시키신 장군
아, 우리 수령님

누구나 가슴 졸이던 전쟁의 첫날에
침략자의 종말을 선언하신분
호탕하신 그 웃음이 우리의 승리였다

그 어느 명장도 그어보지 못한
령장의 붉은 멸적의 화살표가
전승광장으로 뻗은 필승의 진군로였다

말해보라, 세계여
패전을 모른다는 미제의 등골을 꺾은 힘
전쟁사 어느 갈피에 있었던가를
보병총도 원자탄을 이길수 있음을
어느 누가 상상이나마 해본적 있던가를

전쟁에서 이기게 되리라고
세상이 믿지 않았던 그때
승리를 확신하신 30대의 청년장군
거만한 제국주의괴수의 멱줄을 끊어놓은
그이는 기적과 전설의 영웅

굳어진 《강대국》의 신화를
조선의 전승신화로 바꾸신 수령님
장군의 존함은 우리의 힘
우리 승리의 기치
위대한 우리 조국이였으니

흰기를 든 미제의 가련한 몰골을
전승광장 연단에서 굽어보신 장군
미제의 항복서를 통쾌히 짓밟으며

노도쳐간 열병대오에 손길 드실 때
그 손길을 따라 열렸어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승의 력사가

오늘도 수령님은 사열하신다
그날의 손길 높이 드시고
7.27에 축복의 미소를 보내주신다
장엄한 열병대오 영원한 전승의 광장에
아, 영원한 조선의 장군
김일성장군이 거연히 서계신다

화선오락회

김 영 일

하늘도 타고 땅도 타고
살아남은것은 널름거리는 불길만인듯
악에 받쳐 울부짖는 포성과 폭음
또 한차례 파도식공격을 물리친
1211고지 갱도엔 흥에 뜬 음악소리

배심좋은 전사들 벌려놓은 화선오락회
갱도안엔 악기소리 랑만의 웃음
탄피등잔 불심지 더 돋구어라

마음좋은 특무장 짐짓 정색을 하며
순서 어기면 안된다 엄포를 놓는데

선손을 떼울라 시작부터 들썩이던
아바이전사의 둥기당당 춤가락은
웃음판을 요란스레 터치고
애젊은 병사가 넘기는 민요가락은
스리슬슬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고향의 정든 집 풍년벌을 그리는
육박전의 명수 분대장의 구수한 노래는
하많은 추억을 불러오는데
결전에로 부르는 중대장의 노래소리는
또 한바탕 미제를 불마당질해버릴
백배의 용기 부쩍부쩍 돋구어주누나

전투의 여가에 만든 기타며 바이올린
탄피금은 또 얼마나 멋이 있는가
피리와 단소의 유정한 소리도 좋지만
꽹과리의 챙챙한 소리는
고지의 한끝까지 울려가서 좋아라

힘이 나누나 화선오락회
미국놈들 아무리 불비 쏟아부어도
포성을 짓누르는 화선악기 노래소리

포화에 고지는 낮아져도
병사들 마음엔 승리봉이 솟구쳐라

수령님 계시면 싸움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든든한 배짱
고지는 총으로만 지킨다던가
노래로 사수한 영웅의 고지
노래를 부르며 쳐물리친 침략의 무리

불타는 고지에서 울려퍼진
랑만의 노래, 신념의 노래
수령님을 믿고 승리를 굳게 확신하는
1211고지 갱도의 화선오락회
영웅전사들의 전승음악회였어라

전선길이야기

리 철 준

전승 70돐!
누구에게나 부르고싶은 노래도 있고
꽃을 안고 찾고싶은 렬사들 있으련만
나는 이 마음을 세워본다
뜨거운 사연 오늘도 전하는
전화의 그밤 그 고개길에

가렬했던 전화의 나날
법동의 농민 수령님을 만나뵈온 고개
무성히 푸른 아지 펼친 나무는
그날의 사연 전하며 오늘도
미풍에 잎새를 설레이는가

짙은 어둠속에서 미처
수령님을 알아뵙지 못한 로인
어디로 가는가 물으시는 수령님께
김일성장군을 찾아간다고
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린다고
심중을 터놓아 아뢰였거니

우리 인민군대가 전쟁에서
이길것같은가 수령님 물으심에
장군님 계시는데 무슨 걱정 있겠느냐고
신심에 넘쳐 웨친 법동의 농민
아, 그 목소리 인민의 진정 아니였던가

고개길의 대화는 길지 않았어도
수령님 가슴에 차넘친것은
이런 신념, 이런 믿음이 있어
우리는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굳세여지는 신심이고 확신이였나니

미처 수령님을 알아뵙진 못했어도
법동의 농민은 보았더라
수령님 계시여 승리할 전승의 그날을
시련의 천만고개를 넘는다 해도
기어이 수령님의 품에 안겨
행복을 누릴 아름다운 고향산천을

세월은 흘러도 잊을수 없는 고개길
가렬처절한 전선길에서
우리 수령님 평범한 농민과 나누신
그날의 그 이야기엔 깃들어있어라
수령을 따라 승리만을 떨쳐가는 인민
눈부시게 빛날 내 조국의 천만년이!

7.27은 오늘도 래일도…

김 태 룡

전승의 환희가 넘치는 7.27
이날은 한해에 한번 오는 날이던가
렬사들의 령전에 꽃이 놓이고
로병들에게 삼가 드려지는 경의
밤하늘에 축포 터져오르는 이 명절은

흘러온 70년 해와 달들에
깊어지는 생각 얹어보노라
승리, 승리라는 이 말을 떠난
무심한 날 하루인들 흐른적 있었더냐
우리 삶에 조국이 걸어온 행로우에

평범한 날 좋은 날만 있었다면
구태여 승리란 말 울리지 않았을 땅
전쟁은 이겼어도 전쟁보다 더한
시련과 고난은 중중첩첩이였고
원쑤의 침략야망은 한순간도
이 땅을 포기한적 없는 나날이였으니

누가 승자였고 누가 패자였던가
생사를 판가리하는 그 대결에서
세월은 들려주누나 보여주누나
미제가 토해내는 비애의 한숨소리
비루한 제국의 초라한 몰골을

백승의 령장 우리 수령님 격멸하신
미제를 눌러디딘 강철의 령장
오, **김정은**원수님
그이의 담력 그이의 배짱과 슬기가
이 땅에 펼치였어라 승전의 새 력사를

중순양함을 수장시킨 푸른 바다에서
《상승사단》이 괴멸되던 화선에서
《B-29》가 격추되던 저 하늘에서
터져오르던 장쾌한 승전의 폭음
솟구쳐 뿜던 멸적의 불기둥이여

피여오르는 하얀 비행운이
승리의 테프마냥 드리워지던 날들
보기만 해도 승자의 자부 든든해지는
최강의 병기들이 련이어 탄생하던
그날들을 어찌 승리의 날이라 부르지 않으랴

끝없는 공포에 미제를 몰아넣고

전률의 열병에 시달리게 한 조선의 힘
그 힘으로 50년대의 전승을
조선의 줄기찬 전승사로 이어가시는
희세의 령장 **김정은**원수님

한해에 한번만 찾아오는 날이 아니다
7.27은 우리의 오늘이며 래일
미제에게 영원한 패배를 선고하는
전승국 조선의 날과 날들은
언제나 7.27로 흐르고흐르리라

【시】

승리상엔 공화국기가 있다

김 태 룡

바위도 불속에 끓다 녹아버리고
포연에 하늘마저 꺼멓게 죽어가던
화염질은 고지에 날리던 기발이련가
여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승리상의 병사가 높이 추켜든 공화국기발

전화의 그날에서 오늘에 오기까지
저 병사는 몇번째 기수이더냐
수많은 손과 손을 거쳐온 기발
돌격전에서 돌아오지 못한 병사
락동강 모래불에 묻힌 전사도 있으리라

저 기폭에 어리여오누나
람홍색기발에 얼굴 뜨겁게 맞부비고
생사를 알길없는 적후로 떠난 용사들
떼지어 밀려드는 원쑤들앞에서
한치의 땅도 내여주지 말라!
죽을지언정 국기를 높이 든 장한 모습들

물어서만 알랴
어이하여 피젖은 공화국기발이
그들에겐 목숨보다 더 귀중한것이였던지
렬사들의 높뛰던 심장의 박동인가
기발의 세찬 퍼덕임이 다 말해주나니

첫사랑의 고백으로 애틋하게 불러본
내 나라 정든 그 부름이였고
난생처음 만져본 제땅의 살찐 흙
눈물에 가리워지던 동구밖 언덕너머
학교가는 아이들의 붉은넥타이였다

다시는 잃을수 없는 어머니였고
빼앗길수 없는 행복, 주인의 권리였다
정든 고향집, 사랑하는 부모처자
목숨을 바쳐 지키지 않으면
명줄이 끊기는 운명의 전부였다

숨이 져 저 기폭 덮은 전사는 있었어도
살아서 기발을 놓은 전사는 없었어라
탄우를 헤쳐 결전의 언덕을 넘고넘어
전화의 용사들 날려온 기발은
떨쳐온 승리, 지켜온 성스런 존엄

사람들이여

병사가 들어쥔 람홍색기발
전승의 전통 이어가는 계주봉처럼
마음에 굳세게 틀어잡으라
천만이 기수가 되여 무궁토록 휘날려갈
승리상엔 공화국기가 있다

【시조】

사랑이 넘치는 곳에서

김 영 일

산원거리에 들어서면

여기서 시작되여라
한평생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수령님과 장군님
태양의 영상을 모신 벽화가 세워진 여기에서
사랑의 거리 산원거리는 시작되여라

이름은 예전과 다름이 없어도
몰라보게 달라진 거리의 모습
이 거리로 오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
너무도 흐뭇하고 기쁘시여
그리도 환하게 웃으시는가

오롱조롱 매여달린 아이들
어린 소녀의 귀속말 들어주시는
자애론 어버이의 친근하신 영상

나도 진정을 터쳐 말씀드리고싶어라
이 거리에 펼쳐진 사랑의 이야기를

거리의 시작에서 한끝까지
뜨거운 은정 아니 깃든 곳 없어라
인민의 무병무탈 그리도 바라시는
원수님의 극진한 정 별천지로 펼쳐져
아, 무심히 걸을수 없는 이 거리

옥류아동병원이며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과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병원들이 줄지어있는 거리라고
인민이 목메여 말하는 진정
이 거리에 넘치는 활력과 생기를
수령님들께 간절히 아뢰이고싶어라

수령님과 장군님 품속에 안겨
행복만을 누리며 살아온 우리 인민
원수님사랑에 무병장수 더욱 누리니
이 거리의 병원들
수령님들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간절한 이 마음 가슴에 사무쳐와
선뜻 걸음을 옮길수 없는 산원거리
나에겐 생각되누나
원수님사랑에 변모된

이 거리의 변천이 너무 기쁘시여
그처럼 환하게 웃으시는것이라고

한평생 인민을 아끼고 보살피시던
절세위인들의 그 품에 안겨드는듯
가슴 쩌릿해지는 산원거리
쉬이 발걸음 뗄수 없는
아, 사랑의 거리 산원거리여

어머니품에 안겨있다

그 이름도 정겨운 옥류아동병원
맞은켠엔 품을 한껏 벌린 평양산원
어머니품에 안긴 자식이런듯
자식을 품어안은 어머니런듯

어머니와 한시도
떨어져 살수 없는 아이들이여서
산원이 마주보이는 이곳에
아이들의 병원이 정히 자리잡았는가

이름처럼 구슬이 흐르고흘러
여기에 층층 쌓인듯하구나
낮이면 해살에 창가는 보석처럼 눈부시고
밤이면 하늘의 별들이

다 내려와 밝은 빛 뿌리는듯하여라

우리 아이들 위하시는 원수님사랑
들어서면 저절로 눈굽 적시게 하노니
병원인가 궁전인가
너무도 황홀하고 희한해
아이들 올적마다 안가겠다 떼를 쓴다

반겨주는 곰이며 너구리와 야웅이
동화속의 낯익은 《친구》들이라
아이들 그냥은 못지나가는 복도
호실은 또 얼마나 아담하고 정갈하냐
웃음소리 넘치는 병원의 놀이터는

수년세월 걷지 못하던 소년이
이 병원에서 꿈같이 대지를 활보했다
영영 고칠수 없다는 난치병을 털고
애어린 한 소녀가
심장의 고르로운 박동을 찾았다

학교는 아니건만 교실이 있는 병원
병을 고쳐주는 의사선생님만이 아닌
국어도 수학도 배워주는 선생님있어
랑랑한 아이들의 글읽는 소리
이 또한 구슬이 정갈하게 흐르는 소리인가

밖에서 보아도 안에 들어가보아도
어버이의 정이 뜨겁게 어리여있는
여기는 병원이기 전에 사랑의 궁전
어머니품에 아이들이 안기였는가
원수님품에 안긴 행복한 아이들이다

이 땅에만 있어라

이 땅의 어머니라면
누구나 친정집이라 부르는 집
평양산원!
그 정깊은 이름을 불러
생각은 깊다 이 나라 녀인들은

귀를 기울여보라
들려오지 않느냐 새 생명의 고고성이
아기를 안고 나서는 애기어머니
저저마다 꽃다발 한아름 안겨주니
이 마음도 흥떠지누나

저것 봐라 지나가는 총각애들은
저들이 태여난 고향집이라 자랑하는데
너희들도 언젠가는 꼭 올 집이라는 말에
붉어지는 처녀들의 얼굴

수집음은 홍조로 피여나누나

세상에 하나뿐이더라
보석주단을 펼친 애기들의 궁전
받은 사랑 뜨겁고 너무도 극진해
이 나라 녀성들
누구나 친정집이라고 부르는
아, 평양산원!

얼마나 가슴치는 은정이더냐
산원곁에 일떠선 유선종양연구소
몸소 건설장에 찾아오신 원수님
녀성들을 위해 베푸신 한량없는 사랑이
못잊을 전설로 오늘도 전해지고있거니

수령님사랑 장군님은정
대를 이어 끝없이 더해지는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은혜
아마도 없으리라 드넓은 이 세상에
이 땅의 어머니들처럼 복받은 녀성들은

우리의 미래가 태여나는 곳
우리 녀성들의 행복과 긍지가
지지 않는 꽃으로 만발하는 곳이여
이 행성에 산원이 많다 하랴

허나 평양산원
사랑의 집은 오직 이 땅에만 있어라

복을 주는 병원

그 누가 말했던가
이발은 오복중의 하나라고
그래서인지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나 한결같이 하는 말
류경치과병원은 복병원이라고

달리야 말하랴
정말 복을 안겨주는 병원이더라
최신식의료설비를 모두 갖춰
우리 원수님 인민에게 안겨주신
현대적인 류경치과병원

눈에 선히 어리여오누나
기별도 없이 병원에 나오시여
하루에 환자들이 몇명이나 오는가
설비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의약품은 제대로 보장되는가
일일이 물으시던 자애론 어버이모습

진단치료실이며 구급치료실
기공실과 보철실
그 어디나 어려있는 어버이사랑
인민을 위하시는 그 진정에 목메여
누구나 눈시울 뜨거이 적시여라

앓는 사람 찾아와 병원이고
병을 고쳐주는 의사있어 병원이건만
아니구나 이곳은
하늘같은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이
인민에게 복으로 오는 행복의 집

인민을 위한 참 좋은 세상
이 좋은 제도에 솟아오른
사랑의 병원에서
내 터치는 가슴속격정이여
복이 넘치는 내 나라가 제일 좋더라
원수님 모신 내 나라가 세상에 제일이여라

보배병원

류경치과병원을 지나니
저 멋쟁이건물은 보배병원이란다
속담에도 있지 않더냐

사람이 천냥이면 눈은 팔백냥이라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
류경안과종합병원마당에 들어서니
때마침 환자가 퇴원하누나
수십년만에 광명을 찾은 사람
꽃속에 묻혀 울고웃누나

얼마나 보고싶었으랴
날마다 시간마다 변하는
내 조국의 희한한 모습들
마음껏 보고 거닐고싶었던 거리
가까운 혈육들의 정다운 얼굴

그 소원 그 꿈을
어느분이 이루어주시였던가
슴벅이는 눈길로 보고 또 보누나
병원외벽에 새겨진
해빛을 받아 눈부신 맑은 눈동자

저 눈동자가 아니던가
새로 일떠선 병원을 찾으셨던 그날
외형만 보고서도
안과전문병원이라는것이 알린다고
그처럼 기뻐하신 우리 원수님

환하신 미소속에 보고 또 보시였던…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왔다고
꼭 하고싶었던 일이였다고
마음도 많이 쓰신 어버이
원수님 그 사랑에 앞을 보게 되였다고
터치는 격정에 누구나 눈굽을 적신다

광명을 찾은 뜻깊은 날
앞이 보이질 않는다고
눈물이 가리워 보이지 않는다고
그가 터치는 말
왜 이리도 가슴을 치는것인가

눈이 보배라면
눈의 광명을 찾아준 사랑은
무엇이라 노래해야 하는것인가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할 어버이사랑
아, 눈물만이 고마움을 대신하누나

사랑의 거리는 끝나지 않는다

산원거리에 들어선 걸음
어느덧 거리의 끝에 이르렀건만

은혜론 사랑의 이야기
다하지 못한것만 같아
쉬이 걸음을 옮길수 없구나

다시 불러보노라
옥류아동병원과 평양산원이며
류경치과병원과 류경안과종합병원…
인민의 무병무탈 간절히 바라시는
절세위인들의 뜻이 펼친 인민의 병원들이여

정녕 사랑으로 시작되여
사랑으로 이어진 이 거리
끝에 이르렀다 이야기도 끝을 맺으랴
아니구나
사랑은 어느 거리에나 이어져흐르거니

대동강을 낀 문수거리는
웃음소리 높은 문수물놀이장
어서 오라 나를 부르는듯싶어라
대학거리에 눈길을 돌리면
과학으로 비약할 내 조국이 보여와라

멋있구나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옥류교를 넘어서면

창전거리의 화려한 인민극장

려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송화거리와 화성거리에도
어디나 인민위한 사랑의 세계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거리
인민의 웃음이 넘쳐나는 보금자리

이 행복 이 기쁨 주시려
원수님 바쳐오신 심혈은 그 얼마랴
언제나 마음에 인민을 품으시고
기울이신 그 로고가 떠올린
만복의 재부, 희한한 별천지여

산원거리가 전하는 사랑의 전설
그 어느 거리에 가도 가득 넘쳐나거니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거리
사랑의 거리는 끝나지 않는다
인민의 행복에는 정녕 끝이 없어라

【시】

꽃다발을 받으시라

리 광 훈

3.8절 이날은 우리 녀성들
누구나 축복을 받는 명절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아껴주고 위해주는 뜨거운 진정에
가슴 뿌듯해지는 기쁨의 날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가슴에서 웃고
사랑의 노래 심금을 울리여주는
우리는 3.8절 행복의 주인공들
녀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날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습니까

이 행성에 3.8절은 꼭같이 와도
하나같지 않습니다 녀성들의 모습은
기구한 운명, 피할수 없는 불행에
모대기고 가슴뜯는 그런 녀성들
둘러보면 이 세상에 그 얼마이던지

꽃은커녕 늘어만 가는 빚문서가
떨리는 손에 가차없이 쥐여질 때
배척과 멸시로 내던져진 타락의 늪에서
품어줄 사랑 애절하게 찾고 부를 때
3.8절은 그들에겐 슬픔입니다

살길이 막막해 자식들 목숨마저
제손으로 끊어야 하는 그런 어머니들에게
녀자라면 응당 차별을 받아야만 하는 세상
가정도 인생도 포기한 그런 녀성들에게
3.8절이라 어이 웃음이고 기쁨이겠습니까

해빛없인 피여날수 없는 꽃처럼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사랑
안아주고 내세워주는 품이 없인
꽃으로 피여날수 없는 녀성들의 운명
명절이라한들 그 운명 달리될수 없거니

아,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어주고
존엄도 인격도 지켜주고 빛내주는 내 나라
사랑다해 품어주는 이 땅에서
영웅으로 박사로 혁신자로 공로자로
긍지높은 삶을 누려가는 우리 녀성들

기쁨과 즐거움만 넘치는 3.8절입니까

고마운 내 조국 받들어 한생 바쳐갈
불갈은 마음 차넘치는 3.8절
이 나라 천만녀성들
충정의 꽃다발 조국에 드리는 날입니다

【시】

사람을 뽑았어야지

김 태 룡

아무리 각박하고 모진 세월에
실낱같은 희망을 얹는다한들
이래도저래도 피차일반이라한들
한번쯤이야 숙고를 했어야지
ㅡ이게 사람사는 세상이냐!
어제를 후회하는 오늘의 뼈아픈 실책
통절한 가슴들엔 피로 맺힌다

속이는 세상에 속아사는 인생
까짓거 한번 더 속는셈치지
혹시 알겠나 했더니만 혹시는 역시
미련가진대도 바랄걸 바랐어야지
민생이 구겨지고 앞날은 막막하니
내쉬는 한숨에 진하게 묻어나오는
장탄식은 어느 세월에 끝이 나려나

울분이 키운 항거는 짓밟혀야 하고
위선과 불의는 진실을 죽어라 비트니

삭일수 없는 울화가 갈가리 찢는 가슴
죽기가 딱 좋은 사회!
참아 묵새기는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초물이 아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초대
저주의 심지엔 끝장을 볼 불이 달렸다

오만과 독선 뿜어대는 《룡와대》엔
귀신의 망령 섬찍하게 떠도는데
무지와 무능만 망조를 부르나
광태도 분수가 있어야지
대결광이 피워대는 재앙의 불냄새
굴욕과 굴종의 멍에 스스로 메고
사대의 길 뚜벅뚜벅 가는 그 추태 역해라

역시 까마귄 흰칠해도 망칙한 까마귀
시라소니 범가죽 쓴다 맹호가 되랴
저 남쪽장안 와글와글 끓어번진다
어찌하노 눈이 바로 배겼어야지
탄식과 개탄이 격노의 폭풍을 부른다

사람을 뽑았어야지!
사람을 뽑았어야지!

【시】

피할수 없는 숙명

김 영 일

미국이 던져준 개목사리
그 무슨 보석목걸이인양 자랑하더니
오늘은 미국상전에게서 미치광이라 불리운 역도
역시 수하의 졸개는 상전이 잘 아는 법
올데갈데없이 역도는 미친개!

상전을 위해서라면
앞뒤도 가리지 못하는 역도의 추태
제 죽을줄 모르고 날뛰는 무모한 광태에
너무도 어울리는 미치광이
이런 《선물》받고도 싱글벙글하는
영낙없이 그 꼴은 미친개몰골이구나

《북비핵화》, 《3자공조》
게거품 물고 영악하게 짖어대며
아무나 물고뜯는 그 추태
간도 쓸개도 서슴없이 섬겨바치는 그 행태
미치광이와 너무도 신통해

상전의 입에서 불쑥 튀여나온 말 《미치광이》

미국의 개목사리를 목에 건 주제에
여기저기 코를 벌름거리며
죽을둥살둥 모르고 짖어대는 역도
미국의 충견, 사냥개로 사는것도 모자라
섬나라의 번견으로까지 되였구나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라
겨레가 추켜든 몽둥이에
그 언제 사등뼈가 부러질지 모른다
역도가 갈길은 정해져있거늘
뭇매를 맞아 처절하게 숨이 끊기는
그것이 미친개 윤석열 너의 숙명이다

【시】

용서치 않으리라 전쟁광신자들을

리 광 훈

각일각 분분초초는 치닫고있다
핵전쟁 폭발전야의 림계점으로
우리의 타끓는 증오와 분노는
저 하늘끝에 사무치게 닿았거니
용서치 않으리라 전쟁광신자들을

《평양점령》, 《참수작전》…
치떨리는 폭언을 함부로 내뱉으며
감히 공화국을 핵전쟁의 과녁으로 정한
미제와 역적패당의 무모한 광기
이는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
명명백백한 침략의 개시

전면전을 떠들며 날뛰는 광란이
끔찍한 파멸을 스스로 재촉하는것임을
전쟁망상에 앞서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엄정한 경고앞에 더욱 발광한 후과
똑똑히 보여주리라 얼마나 처절한가를

하늘로 덤벼들면 징벌의 벼락을 치고
땅과 바다로 달려든다면
그 땅, 바다만큼 피를 쏟게 하리라
떼지어 달려드는 천하의 악귀들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서리발 보복의 조준경밖으로

부나비가 불에 타죽듯
비참하게 종말을 고할 전쟁광들아
죽으러 오라!
적개의 피를 끓이는 천만은 나섰다
천백배로 결산할 멸적의 보복성전에

후회할 순간조차 차례지지 않으리라
달아날 퇴로조차 없으리라
결판이 없는 대결의 끝은 없거늘
분별을 잃고 설쳐댄 광란의 대가
결단코 죽음으로 치르게 하려니

목숨같은 우리의 존엄과 국권을 지켜
다져온 막강한 힘을 터칠 때는 왔다
단호하게, 무자비하게
침략의 무리를 단호히 쓸어버리리라
오, 우리는 격멸의 명령을 기다린다

【시】

깨끗이 결산하리라

리 창 식

피가 끓는다
세기를 이어오며 우리 민족에게
뼈저린 아픔과 고통만을 강요한 원쑤
오늘은 우리 강토를 핵참화속에 잠그려
분별없이 날뛰는 전쟁미치광이들
천백배 징벌할 멸적의 피가 타끓는다

《년례적인 훈련》, 《방어적성격》
이제는 그 허울마저 벗어버리고
무엄하게도 《평양점령》을 줴쳐대며
하늘과 땅, 바다에서
핵전쟁연습에 피눈이 된 미제와 괴뢰호전광들

덤벼들라
우리 삶과 운명의 하늘
어버이 계시는 수도 평양을
목숨처럼 소중히 안고사는 인민이다
천만인민이 성벽되여 지켜선 평양이다

야만적인 제재와 봉쇄속에서
최강의 힘을 키운 우리의 군력이다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거부하는
철천의 원쑤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천백배 보복의 피를 끓이는 인민이다

맞서보자
보병총으로 원자탄과 맞서 이긴
지난 세기의 조선이 아니다
선택권은 침략자에게만 있지 않거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체병기들이
침략자, 도발자들을 멸적의 조준경안에 넣고
명령을 기다리고있다

몸서리치게 깨닫게 하리라
쌓이고쌓인 우리의 분노와 증오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서 백배해진 우리의 힘
조선의 불맛 진짜전쟁맛이 어떤것인가를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리리라
세기를 두고 다져온 초강력
멸적의 활화로 터쳐
이 행성의 불행과 고통, 악의 근원을
송두리채 태워버리리라
철저히, 깨끗이 결산하리라

【수필】

명절에 얽는 생각

강 은 별

명절은 어느 나라에나 다 있다.

허나 그 명절이 누구에게나 즐거움과 기쁨의 대명사로 되여 손꼽아 기다려지고 마음껏 향유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제도에 따라 명절이 사람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더해주는 의의깊은 날로 되기도 하고 있으나마나한, 없는것보다 못한 불우한 날로 되기도 하는것이다.

나에게는 명절에 대해 이렇듯 커다란 의미를 얽어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

며칠전 내가 5.1절을 맞으며 연분홍저고리를 차려입고 거울앞에서 몸단장을 하고있는데 5살잡이 딸애가 다가서며 캐득거렸다.

《야, 엄마가 정말 곱네.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이게 고운 옷을 입었나요?》

쌍가풀진 두눈에 호기심을 함뿍 담고있는 딸애의 코등을 가볍게 튕겨주며 나는 말했다.

《오늘은 5.1절이란다.》

《5.1절?》

《그래. 5.1절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이란다. 엄만 오늘 예술공연에도 출연하고 체육경기에도 참가해야 한단다.》

리해가 되지 않는지 딸애는 머리를 기웃거렸다.

아직은 국제적명절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에는 너무도 어린 딸에게 나는 《음, 국제적명절이라는건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함께 맞는 명절이란 뜻이란다.》라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딸애는 《야,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이 엄마처럼 고운 옷을 입고 노래도 하고 체육경기도 하겠네.》하며 손벽을 치는것이였다.

딸애의 엉뚱한 말에 나는 생각이 깊어졌다.

누구나 명절이면 기쁨과 즐거움속에 노래하고 춤추며 즐긴다.

하다면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에 이 세상에는 노래소리, 웃음소리만이 울려퍼지는것이던가.

5.1절을 맞는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랑만과 희열의 노래소리가 하늘높이 울려퍼질 때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근로자들의 분노와 항거의 웨침소리가 하늘에 메아리치고있다.

지난해에만 보아도 5.1절을 맞으며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생존권을 위한 근로자들의 시위가 일제히 벌어졌다. 이날 각국의 주요도시들에서 약 300차례의 시위가 일어났다고 한다.

다른 명절도 아니고 근로하는 사람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에 벌어진 근로자들의 이 시위는 나로 하여금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그들이라고 왜 명절을 즐기고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랴.

허나 그들은 자기들의 명절에 향유자의 모습이 아닌 항거자의 모습으로 거리에 나섰다.

무엇때문이였던가.

항시적으로 심신을 괴롭히는 해고위협이, 생계조차 제대로 이어갈수 없는 집살림을 두고 한숨짓는 안해들의 그 눈물이, 유산처럼 상속되는 가난에 기를 못펴는 자식들의 처량한 모습이 그들을 시위에 나서게 한것이 아니던가.

명절은 있어도 진정한 《명절》이 없는 사람들.

생각은 더욱 깊어만 졌다.

나는 평범한 근로자이다.

허나 나는 로동자라는 이 부름만으로도 이 땅의 모든 행복과 영광을 마음껏 누릴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송화거리의 이 멋쟁이집도 로동자부부라고 남먼저 받아안지 않았던가.

평범한 로동계급이 영웅으로, 나라의 대의원으로 또 공로자로 만사람의 존경과 축복을 받는 사회.

그렇다.

어떤 사회제도인가에 따라 로동자들, 근로자들의 처지나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것이다.

복받은 로동계급! 이 부름을 다시금 불러보려니 눈굽이 뜨겁게 젖어오른다.

로동계급의 손은 정말 보배손이라고,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며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세워주신 우리 수령님.

우리 로동계급이 일하는 곳이라면 천길 땅속이라도 꼭 들어가보아야 한다시며 지하막장에까지 찾아오셨던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우신 그 모습이 가슴에 뜨겁게 어리여온다.

진정 인류력사 그 어느 갈피에 있었던가.

평범한 근로자들이 당중앙위원회 뜨락에서 령도자와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고 영광의 연회장에서 령도자의 축복이 어린 축배잔을 받아안은 감동깊은 화폭이.

평범한 로동자들을 위해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로동자호텔》도 일떠세워주시고 5.1절을 맞는 로동자들에게 성대한 연회상도 차려주신 절세위인의 전설같은 사랑의 력사가.

자본주의번화가도 부러워 눈뿌리를 뽑는 경루동의 호화주택들에서는 무궤도전차운전사, 직포공, 상하수도관리공 등 나와 같은 평범한 근로자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정녕 우리 로동계급이 누리는 더없는 행복과 값높은 영예는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행운이 가져다준것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이 있을수 있는것이다.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에 나는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수필】

국기와 존엄에 대한 생각

리 창 식

국기는 국가를 상징하는 기발이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자기의 국기를 가지고 있으며 국기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색과 태양, 달, 별, 교회 등 자기 민족의 취향이 담긴 상징적인 그림들을 새겨넣고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국기를 빛내이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지나온 력사를 뒤돌아보면 오랜 력사와 풍부한 자연부원, 자기 인민의 값비싼 피와 땀이 어려있는 국기가 인민의 눈에 피눈물을 지으며 내리워지고 지구상에서 영영 자취를 감춘 례는 많다.

하다면 우리의 공화국기는 어떤 힘을 지녔기에 태여난 순간부터 오늘까지 순간의 변색도, 멈춤도 없이 더 붉게, 더 세차게 휘날리는것인가.

나는 우리의 공화국기의 무게를 두고 다시금 생각을 깊이해본적이 있다.

온 가족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된 열병식을 시청하던 저녁이였다.

공화국의 70여년의 자랑찬 력사를 아로새긴 국기가 장중한 국가의 선률에 맞추어 게양되고 위대한 령장의 답례를 받으며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미더운 인민군열병종대들과 선두차마다 공화국기를 날리며 멸적의 굉음을 울리는 땅크종대, 포병종대, 우리 공화국전략무력의 가장 강력한 핵심타격수단들의 어마어마한 실체들…

문득 안해가 TV화면에 비쳐진 《화성포-18》형을 실은 발사대차에서 휘날리는 공화국기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우리의 공화국기는 볼수록 정이 가고 멋있어요.》

나는 속으로 다시 뇌여보았다.

정이 가고 멋있다!

우리의 국기가 사랑스럽고 제일이라는 말이다.

비록 짧고 조용했어도 왜서인지 그 말은 나에게 깊은 생각을 불러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의 하늘가에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을 담아 휘날리게 하신 람홍색공화국기.

그때로부터 70여년세월 우리의 국기는 자기의 기폭에 무엇을 새겼고 어떻게 휘날려왔던가.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건국이래 백수십년동안 단 한번도 패전을 몰랐다는 제국주의괴수 미국과 맞서 미증유의 전승신화를 창조함으로써 신생조선의 국기는 온 세계의 각광속에 높이 떠올랐다.

미국이 남북전쟁이후 력사상 처음으로 나포된 배라고 아우성치며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떠들던 미제의 무

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전쟁도발의 구실을 만들려고 조작한 판문점사건, 대형간첩비행기 《EC-121》사건, 수십년간의 치렬한 조미대결전…

남들이면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엄혹한 환경에서, 세계 《유일초대국》이라 자처하는 미국과의 치렬한 대결에서 우리 공화국은 단 한번의 실패와 좌절도 없이 자기의 국기에 언제나 백승의 무훈만을 아로새겨왔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의 국기에는 자력으로 전진하고 비약하는 조국의 모습과 인민의 긍지와 자부, 부강번영할 래일에 대한 확신이 비껴있다.

힘차게 나붓기는 공화국기의 기폭아래 우리 인민모두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고 웃음넘친 생활과 아이들의 즐거운 학교길이 있으며 기적과 변혁의 실체들이 세상을 놀래우며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다.

그리고 그 기발아래서 보다 아름답고 휘황한 래일이 더 훌륭하게, 더 많이 꽃펴나리라는것을 굳게 믿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누구나 국기를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그것이 사회의 국풍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또다시 가슴뜨겁게 어려온다.

국기게양식에서 공화국기를 숭엄한 안색으로 바라보시며 조용히 국가를 부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거룩한 영상이.

우리 인민을 이 세상 제일 잘사는 인민으로, 세계가 부러워하게 내세워 공화국기와 더불어 조선을 인류의 상

상봉에 올려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갈은 신념과 의지가 어려오는 모습이다.

그렇다. 국가의 존엄이자 국기의 존엄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특출한 정치실력과 높으신 권위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은 공화국기와 더불어 세계에 더 높이 빛날것이다.

자주로 존엄높고 자력으로 전진하며 백승만을 떨치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기상을 안고 우리의 국기는 우리 인민모두의 마음속에 제일 사랑스럽고 존엄높은 기발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세세년년 무궁토록 나붓길것이다.

우리의 국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 위대한 우리 조국의 존엄을 다시금 가슴뿌듯이 되새겨본 저녁이였다.

【수필】

새 거리에서 새 거리에로

리 철 준

언어, 말을 떠나 사람들의 생활을 론한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을것이다.

그만큼 언어는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표현수단이며 위력한 소통수단이다.

그러나 많이 들었어도 별로 감흥을 주지 못하는 말이 있고 짧은 말속에서도 깊은 공감과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말도 있음을 우리는 생활과정에 종종 느끼군 한다.

얼마전 퇴근길 뻐스에서 나는 우연히 뒤에 앉았던 처녀들의 대화를 듣게 되였다.

《참, 너 들었니? 봄향이가 시집간대.》

《정말?》

《새 거리에서 새 거리에로.》

《그건 무슨 소리가?》

《얜 참, 송화거리에서 화성지구의 새 거리로 시집을 간단 말이야.》

《호호호. 정말 그렇구나. 야, 송화거리도 새 거리인데 이제 또 화성지구의 새집으로 시집을? 그러고보니

새 거리에서 새 거리로 시집을 가서 새 가정을 이루겠구나!》

《그리고 아기도 낳고… 호호호.》

낯모를 처녀들의 대화이건만 절로 마음이 흥그러워짐을 느끼며 나는 가만히 되뇌여보았다.

새 거리에서 새 거리에로!

그 한마디 말이 왜 이리도 가슴을 쿵― 치는것인가?

세상을 놀래우는 신화적인 건설속도로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 오늘의 벅찬 숨결이 가슴에 흘러들었고 꿈만 같던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고 터치던 격정의 목소리들이 귀전에 울리는듯싶었다.

눈부시게 일떠선 송화거리에 보금자리를 폈던 그 기쁨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현대건축미를 자랑하며 솟구쳐오른 화성지구의 선경거리에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처녀.

나의 눈앞에 화려한 치마저고리를 차려입고 송화거리를 떠난 처녀가 수집은 미소를 띠우며 화성지구의 새집에 들어서는 모습이 방불히 안겨왔다.

그리고 왜서인지 처녀들이 나눈 대화의 주인공이 생면부지로 느껴지지 않았다.

로동당시대의 부흥과 문명을 상징하며 솟구쳐오른 인민의 새 거리들마다에서 이러한 처녀들, 새 가정을 이루는 청춘남녀들을 날에날마다 볼수 있는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깊어지는 생각은 나를 환희의 축포가 오르던 새 거리들의 준공식장으로 이끌었다.

인민과 한 약속,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결실을 보아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인민의 리상거리, 사회주의번화가건설의 전 과정을 이끌어주시던 그 심혈과 로고는 묻어두시고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준공테프를 끊으시던 우리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앞에 어려왔다.

진정 인민을 위한 길에서 끝을 모르는 위대한 어버이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은 전대미문의 시련속에서도 인민의 만복을 위한 새로운 설계도를 련이어 펼치였고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위민헌신의 그 자욱자욱우에 해마다 현대문명이 응축된 새 거리들, 행복의 별천지들이 련이어 솟아올랐으며 사회주의농촌마다에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참으로 인민의 새 거리, 인민의 보금자리가 늘어날수록 인민의 행복은 나날이 커만 갔고 인민의 리상과 문명의 높이는 더더욱 높아졌으며 내 조국의 모습은 세상이 놀라도록, 우리자신도 믿기 어렵게 천지개벽되였다.

언제인가 신문에서 보았던 자본주의사회의 실상이 아프게 안겨들었다.

집이 없어 세방살이로 시작한 신혼부부가 집세를 물지 못해 어떤 때는 2~3달, 어떤 때는 5개월에 한번씩 쫓겨나 2년동안에 8번이상 이사짐을 싸야만 했던 설음

이 글줄마다 슴배여있었다.

새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에게 있어서 제 집을 가지는것만큼 큰 소원은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그 신혼부부는 호화를 자랑하는 번화가들이 눈앞에 솟아있고 주인없는 빈집들이 많고많았건만 제 집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끝끝내 산같은 빚독촉에 목숨을 끊어야만 했다.

이러한 비극은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 부익부, 빈익빈의 썩고 병든 사회가 낳은 산물로서 치유불능의 악성종양처럼 근로대중의 삶을 고통과 절망, 죽음에로 몰아가고있다.

이런 지옥같은 사회이기에 청춘남녀들이 결혼을 포기하는것이 사회적풍조로 되고있고 근로대중에게 있어서 제 집을 마련하는것은 언제 가도 실현할수 없는 헛된 꿈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일생을 약속한 청춘남녀들이 사회주의문명을 자랑하며 솟구쳐오른 인민의 리상거리, 새 거리에서 또 다른 새 거리에로 행복의 보금자리를 옮기는것이 례상사로 되고있다.

새 거리에서 새 거리에로!

세방살이에서 자살의 길로!

이것이 바로 인민의 리상이 꽃펴나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와 인민의 꿈이 짓밟히는 자본주의제도와의 판이한 두 현실이고 승승장구하는 사회와 몰락해가는 사회와의 숨길수 없는 차이이다.

그렇다.

이 세상에 번화가들을 일떠세운 나라는 많아도 인민의 리상거리들을 눈부신 실체로 련이어 일떠세우며 인민의 행복을 만발하는 화원처럼 활짝 꽃피우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는 오직 우리의 사회주의조국뿐이다.

앞으로 위대한 어버이의 손길아래 계속 일떠설 더욱 훌륭하고 아름다운 새 거리, 새 보금자리들에서 얼마나 많은 청춘남녀들이 새 가정을 이룰것인가!

새 거리에서 새 거리에로!

진정 짤막한 말이였건만 눈부신 변혁의 시대, 격동으로 가슴부푸는 영광의 세월속에 값높은 삶을 누리는 인민의 행복상이 비껴있는 말이였고 우리 원수님 안아오시는 휘황찬란한 래일을 벅차게 안아보게 하는 말이였다.

【수필】

행복의 사태

강 은 별

오늘은 귀여운 아들애의 생일날이다.

자기 생일날에는 장난감땅크를 꼭 사주어야 한다며 손가락약속까지 받아낸 아들을 생각하며 나는 퇴근길에 평양제1백화점에 들렸다.

내가 3층에 있는 장난감매대로 가기 위해 계단으로 향하는데 식료품매대에서 판매원과 한 할머니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나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였다.

《판매원처녀, 저 빵두 좀 달라구. 그것두 또 이것두…》

《할머니, 벌써 두구럭지가 넘는데 이렇게 많은 빵을 사서는 뭘 하자는겁니까?》

《손자녀석이 빵을 사달라고 해서 왔는데 빵의 가지수가 이렇게 많은줄 몰랐구만.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그야말로 사태야, 빵사태. 욕심 같아서는 이 빵들을 몽땅 가져다가 손자에게 먹이고싶네.》

《호호호— 할머니 이 빵들은 모두 맛도 좋고 영양가도 대단히 높답니다.》

《그래! 우리것이 폭포처럼 쏟아지니 정말 기분이

좋구만. 신발매대에 가면 신발사태요, 가방매대에 가면 가방사태 또 이렇게 식료품사태까지 쏟아지니 마음이 흐뭇하구만.》

사태!

할머니가 흥에 겨워 무심히 한 말이였지만 그 부름이 나의 가슴속에 일으킨 격정은 참으로 컸다.

사람들은 흔히 사태라고 하면 이상기후현상이나 자연재해로 하여 인간이 당하게 되는 재난과 불행을 먼저 생각할것이다.

그러나 할머니가 너무도 스스럼없이 말하는 사태는 결코 불행의 사태가 아니라 이와는 너무도 상반되는 행복의 사태였다.

행복의 사태!

다시금 마음속으로 곱씹으려니 불현듯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어느해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준공을 앞둔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찾으시여 일군들에게 인민들이 여기에 와서 스키운동이나 승마운동을 한 다음 실내온천장에서 온천욕을 하면 좋아하겠는가고 물으시였다고 한다.

한 일군이 사람사태가 날것같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사람사태라, 행복의 사태겠지.》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좋아할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얼마나 기쁘시고 만족하시였으면 우리 원수님 행복

의 사태라고 그렇듯 뜨겁게 뇌이셨으랴.

진정 인민들에게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더 많이 안겨줄 불같은 일념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 바쳐오신 헌신과 로고는 정녕 그 얼마였던가.

중평과 련포에 가면 현대적인 온실마다에서 남새가 사태처럼 쏟아져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기쁨과 격정의 파도를 불러일으키고 또 나라의 방방곡곡에서는 특색있고 멋들어진 살림집들이 일떠서 래일을 마중가는 인민들의 가슴가슴을 끝없는 기쁨과 환희로 설레이게 하고있지 않는가.

인민들이 받아안은 행복의 사태!

정녕 이것은 공화국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인민이라고 불러주시며 행복과 문명을 안겨주어도 세상에서 제일 값진것으로 안겨주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인민에 대한 사랑, 애국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들이다.

생각이 깊어지는 속에 문뜩 내 만일 이 땅이 아닌 날에날마다 불행의 사태가 범람하는 괴뢰지역과 같은 불모의 땅에 떨어진 인생이라면 나나 내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였을가 하는 생각을 하니 심장이 졸아드는것만 같았다.

지난해 괴뢰지역에서는 반지하로 사정없이 쓸어드는 비물과 감탕으로 하여 장애자인 세 모녀가 비명에 숨지는 가슴저리는 참사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목터지게 울부짖고 손끝이

닳아 피가 나오도록 창문을 허비였건만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사상으로 오염된 사회는 그들을 끝끝내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운명의 길로 떠밀었다.

이를 어찌 자연이 초래한 불행이라고만 하랴.

최근에는 자살사태, 실업사태 등 썩어빠진 사회가 잉태하고 산생시킨 온갖 불행한 사태가 그 어느때보다 더욱 가중되여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근로대중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우고있다고 한다.

괴뢰지역에서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는 자살의 경우만 보아도 2019년 한해동안 한강다리에서 투신자살한 사람의 수는 504명으로서 하루 1.3명이였으며 그 수는 해마다 더 늘어나 세계적으로 최고의 자살기록을 내고있다고 한다.

그러니 이를 어찌 자살사태라고 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만성적인 경제위기로 하여 실업사태가 가중되고 근로대중의 생명안전, 로동안전대책을 외면하는 당국의 극악한 로동정책으로 하여 각종 사고들이 사태마냥 꼬리를 물고일어나고있는 곳도 다름아닌 괴뢰사회이다.

오죽했으면 《아침에 일터로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것》이 최대의 소망이라는 근로대중의 애처로운 목소리, 절망의 한숨소리가 인사말처럼 통용되고있겠는가.

괴뢰지역에서 계속 빚어지는 불행의 사태!

이것은 인민의 생명안전과 복리보다는 돈을 첫째가는 자리에 놓고 부자들만을 위하는 썩고 병든 괴뢰사회

가 낳은 필연적산물인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에서 인민들이 피부에 뜨겁게 와닿는 사랑과 행복에 목메여 사회주의만세소리 높이 부를 때 괴뢰지역에서는 쌓이고쌓인 분노가 불러온 초불바다가 얼어든 거리와 광장들을 메우며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요구하여 어둠을 밝히고있다.

명암처럼 대조되는 행복과 불행의 두 사태!

흔히 언어에 그 시대가 비낀다고 하였다.

그렇다. 내 조국 방방곡곡에서 끝없이 쏟아지는 행복의 사태가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더더욱 륭성번영해갈 우리 공화국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기쁨의 대명사라면 괴뢰사회를 휩쓸고있는 불행의 사태는 정치와 제도를 잘못 만나 괴뢰지역 주민들이 당해야 하는 불우한 운명과 암담한 미래를 특징짓는 원한의 대명사인것이다.

나는 가슴가득 차오르는 긍지와 행복감을 안고 걸음을 옮겼다.

【수필】

계절에 대한 생각

정 성 남

계절이란 한해를 절기에 따라 구분하여 표현하는 말인 동시에 매해 되풀이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나 때를 이르는 어휘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맑은 아침의 나라로 불리워온 우리 나라에는 자연환경의 대조변화가 뚜렷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있다. 그런가 하면 푸르른 나무잎이 색을 바꾸는 아름다운 가을풍경을 두고 단풍계절이라고 이르는것을 비롯하여 씨붙임계절, 수확계절 등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련결된 계절이름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얼마전에 나는 퇴근길에서 우연히 들었던 계절과 관련된 말을 두고 깊은 생각을 해본적이 있었다.

불빛밝은 거리를 따라 집으로 가던 나는 앞서가는 처녀들이 주고받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였다.

《화성거리에 이사한 경희네 집에 가보니 정말 멋있더구나.》

《그래, 지난해 영순이가 입사한 송화거리의 집도 희한했는데…》

《부러워하긴, 래년도 새집들이계절엔 은정이 너도

서포지구의 새집으로 이사가게 될지 알겠니. 호호호!》

가랑잎 굴러가는 소리에도 웃는다는 한창나이의 처녀들이라 까르르 웃음발을 남기고 사라졌지만 나의 뇌리에는 왜서인지 그들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다.

새집들이계절! 어딘가 생소한것같지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경루동과 송화거리로, 올해에는 화성거리와 대평지구로…

뜻깊은 태양절을 맞는 화창한 4월에 새 거리 준공식에 이어 새집들이행렬이 수도의 거리를 누비는것이 이제는 하나의 일상사로, 풍경으로 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새집들이계절이라는 말이 나올만도 하다.

순간 나는 가슴이 쩌릿해오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아직은 나라가 부족한것이 많고 난관도 적지 않아 한푼의 자금이 귀중한 이때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줄 살림집건설이 제일 선차적인 국가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여기에 막대한 국가자금과 로력, 설비가 우선적으로, 아낌없이 돌려지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지금도 세상사람들의 놀라움과 격정을 자아내고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에 뜨겁게 마쳐오는것은 우리 나라를 세계에서 집문제가 가장 먼저, 가장 높은 수준에서 해결된 나라로 만드시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바쳐가시는 불같은 위민헌신의 로고이다.

인민의 리상거리들의 형성안으로부터 살림집들의 건축형식과 집구조까지 세심히 마음쓰시며 사회주의선경거리답게 최상의 수준으로 완성하시려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우리 원수님.

건국이래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최대비상방역전의 나날에도 인민들과 한 약속은 어길수 없다시며 살림집건설을 중단없이 내밀도록 해주신분도, 이미 시작한 새 거리가 완공되기도 전에 련이어 새 주택지구건설착공에 진입하도록 하시고 여러개의 거리건설을 동시에 립체적으로 내밀도록 하시여 우리 당의 숙원사업이 그 전례를 모르는 폭과 심도에서 끊임없이 줄기차게 이어지도록 해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처럼 숭고하고 열화같은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내 나라에는 그 어느 사전에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새집들이계절이라는 말도 생겨난것이 아니랴.

오늘날 새집들이경사를 맞는 사람들이 어찌 수도의 시민들뿐이라 하랴. 저 멀리 최북단의 이름없는 마을로부터 분계연선지대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동서남북 그 어디서나 농촌진흥의 상징으로, 희한한 새 농촌문명의 본보기로 솟아난 황홀한 살림집들에로 이어지는 새집들이행렬들은 또 얼마나 장관인가.

이 땅의 평범한 근로자들을 만사람이 부러워하는 행운아들로 내세워주신 하늘같은 그 은정이 고마워 천만아들딸들이 심장으로 터뜨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 로동당 만세소리가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문뜩 이런 글줄들이 떠오른다.

《북사람들 정말 좋겠네. 저런 고급아빠트에서 살고…》, 《저런 나라가 존재한다는것이 신기하다.》, 《나도 저런 곳에서 살아보았으면…》

이것은 새로 일떠선 희한한 살림집들을 공화국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받아안은 소식에 접하고 괴뢰지역 주민들이 인터네트에 올린 글들의 일부이다.

사실 그 불모의 땅에서는 인구의 근 절반이 제 집이 없이 남의 집 세방살이를 하거나 그것도 없어 판자, 비닐, 지함들로 만든 집 아닌 집들에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있다. 게다가 날로 격화되는 경제위기와 사회적불평등 그리고 통치배들의 반인민적악정으로 민생은 파국의 심연속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하기에 근로대중에게 있어서 일년 열두달은 불행과 고통, 절망의 계절로 되고있고 생존의 권리, 민주주의적권리를 요구하는 각계층의 항의시위와 집회가 매일과 같이 펼쳐지고있다.

하지만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철저히 구현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 세상 그 어디서 들어본적도 없는 새집들이계절이 펼쳐지는 등 온 한해가 행복의 계절, 기쁨의 계절로 이어지고있다.

그렇다. 위대한 어버이의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의 생활속에 다가온 이 행복의 계절들이야

말로 인민의 세상인 우리 공화국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나는 확신한다. 끝없이 강성번영할 공화국의 력사와 더불어 우리 인민의 생활속에는 새집들이계절과 같이 이 세상 누구도 누려볼수 없는 주체조선특유의 행복의 계절, 기쁨의 계절들이 더 많이, 더 뜨겁게 깃들것이다.

【수필】

늘어나는 두 행렬을 두고

유 현 의

밤은 계속 깊어가도 온 마을의 집집에는 불이 꺼질 줄 모른다.

아마도 우리 집처럼 옆집이나 앞집, 뒤집도 새집들이 경사의 기쁨과 환희로 잠을 다 잊은듯하다.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가 펼쳐져 흥겨운 새집들이소식이 련일 전해지는 속에 정월에는 부전의 문암농장에 사는 누이네가 멋쟁이 새집에 이사했노라고 자랑하는 소식이 날아들더니 엊그제는 이웃군의 황홀한 새 마을의 이사소식이 전해지고 오늘은 또 우리 마을에 새집들이경사가 꿈만같이 펼쳐졌다.

아직도 농악대를 앞세우고 온 마을이 한데 어울려 웃음속에 어깨춤을 추며 동구밖까지 쭉 이어져흐르던 기쁨의 이사행렬이 삼삼하게 보여온다.

그 행렬에는 우리 가정처럼 춤을 추며 새집에 들어서던 농장원들도 있고 남새분조장처럼 눈물을 글썽이며 선뜻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던 녀인들도 그리고 이 멋쟁이집이 정말 내 집이 옳은가고 거듭거듭 묻던 마을의 로인들도 있다.

생각할수록 가슴은 쩌릿해진다.

평범한 농장원인 나에게도 이런 희한한 새집이 차례지다니…

나의 눈앞에는 웃음소리, 노래소리 울리며 마을의 길을 메우던 이사행렬과 함께 문득 얼마전 TV에서 본 이민행렬이 떠올랐다.

황색먼지가 뿌옇게 날리는 길로 피난의 길에 오른 불우한 인간들의 모습. 남부녀대하고 끝이 보이지 않게 늘어선 사람들속에는 우리 막내아들또래쯤 되였을 아이가 등에는 젖먹이동생을 업은채 량손에는 《이사》짐을 들고 엄마의 뒤를 따라 눈물범벅이되여 걸어가는 가슴아픈 모습도 있는가 하면 앙상한 몸을 지팽이에 의지하고 넘어질듯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로인들도 보였다.

피난처를 찾아 걷는 지친 그들의 얼굴에는 한시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모지름과 함께 정든 보금자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슬픔이 력력히 슴배여있었다.

단지 죽음과 공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그 몸부림으로 그들은 오라고 반겨줄이도, 따뜻이 품어줄 곳도 없는 그 어딘가로 정처없이 걷고 또 걷는것이다.

이사행렬과 이민행렬!

농촌진흥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땅에 옛 모습을 찾을길 없이 희한하게 일떠서는 보금자리로 날마다 끝없이 이어져흐르는 이사행렬과 분쟁의 참화속에서 살길을 찾아 이어져흐르는 이민행렬은 참으로 판이한 사회상을

웅변해주고있다.

내가 만일 이 땅이 아닌 아픔과 불행이 가실 날 없는 그런 땅에 살고있다면 이민행렬의 수난자가 되는 운명을 결코 피할수 없었으리라.

그렇다!

오늘은 새집들이기쁨이 우리 마을에 차고넘쳤다면 앞으로 이 나라 농촌 그 어디에나 새집들이행복과 기쁨이 련속 찾아들리라.

내가 새집을 받아안고 이렇게 환희와 희열로 잠 못드는 이밤에도 정처없이 계속 살길을 찾아헤매일 불우한 인간들의 처지를 생각하노라니 이 가슴에 갈마드는 뜨거운 생각은 내 나라 사회주의에 대한 고마움이다.

다같이 인간으로 태여났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어느 사회에서 사는가에 따라 매 개인의 운명이나 가정의 운명은 극과 극처럼 판이하게 갈라진다.

지켜주고 안아주는 품이 있어야 보금자리도 굳건하고 그런 품이 없으면 보금자리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는것이 오늘의 행성에 펼쳐지는 현실이 보여주는 명백한 진리이다.

깊어지는 생각속에 지난 2월 수도의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장에 울리던 발파소리가 가슴을 쿵쿵 울리여준다.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훌륭한 보금자리를 안겨주시기 위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살림집건설의 대전역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의 손길아래 이 땅에는 얼마나 무수한 인민의 보금자리가 새로 일떠서고 옛 모습을 전혀 찾을길 없는 아름다운 명화폭과 같은 새 거리, 새 마을들이 새 주인들을 맞아들였던가.

그리고 앞으로 인민의 보금자리는 이 땅우에 얼마나 더 늘어나고 행복의 이사행렬은 또 얼마나 눈뿌리 아득하게 이어져흐를것인가.

늘어나는 이사행렬은 날로 흥해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모습이라면 늘어나는 이민행렬에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현실이 그대로 비껴있다.

행복이 절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면 아무리 행복을 찾아헤매도 찾을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피난의 길에 오른 이민들이다.

곱씹어 새길수록 우리 원수님 안겨주신 내 집이 제일이고 이 집에서 대를 이어 복락을 누리며 그 사랑, 그 은정에 길이 보답할 마음이 이 가슴을 세차게 높뛰게 한다.

정녕 이 지구상에 집은 많아도 진정으로 인민을 품안아 끝까지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운명의 집은 오직 하나 우리 원수님의 품이다.

그 품속에 인민의 행복넘친 보금자리,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세월은 끝없이 태여나고 끝없이 흐를것이다.

【단편소설】

판　　결

김 석 문

《자, 그럼 5급공무원들. 어디 또 시작해볼가.》 하고 홍교수가 말했다.

《사법연수원》시절 연수생들을 가르치던 습벽이 있어선지 홍교수는 《법학전문대학》 학생들을 놓고서도 《5급공무원》이라는 날말을 입에 올리기 좋아하였다. 앞으로 5급공무원이 되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5급공무원도 못되는 주제에 하는 식의 비양인지는 모르겠으나 홍교수는 노상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어제 어디까지 했던가. … 오, 최근에 일어난 김포비행장 투석미수사건이였지.》

《예.》

학생들의 대답소리들이 시들하니 들려왔다.

《박군, 여기 모인 청강생들을 위해 다시한번 설명해주게. 될수록 간단히.》

《예.》

호기를 뽑는 대답소리에 이어 사건개요가 흘러나왔다.

《성명 유강산, 성별 남자, 년령 92세…》

《부차적인건 그만두고.》

《예, 사건일시 지난 7월 모일. 유강산은 <한>일외교장관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외교부> 장관을 김포비행장에서 돌로 까려고 시도. 돌의 크기와 무게로 보아 사람을 능히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수 있을 정도임. 특수폭행미수 및 특수공무방해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였음. 이상입니다.》

《됐네. 지금 검찰이나 재판소측에서는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어. 20여년전에 일본으로 가려던 <대통령>특사에 대한 닭알투척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번엔 <외교부> 장관에 대한 투석미수사건이 터졌으니 꼭 벌둥지를 쑤셔놓은것같아. 아마 누구든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할거야. 그럼 각자 예비법조인으로서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기소장들을 작성해오라고 했는데… 박군, 일어났던김에 마저 발표하구 앉지.》

홍교수의 말이 끝나자 박군이라 불리운 박준표는 기다렸다는듯이 자기가 작성한 기소장을 손에 들고 그안에 씌여진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우선 피고 유강산은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폭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아시다십이 <외교부> 장관에 대한 폭행은 개인의 령역을 뛰여넘어 <국가>에 대한 모독으로도 됩니다. 게다가 범행을 기도한 곳이 공공장소이며 또 돌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폭행도구로 사용하려한 점을 고려해볼 때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와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에 관한 처벌조항에 따라 징역 12년형이 마땅하리라고 보아집니다. 단지 범인의 범행기

도가 결과발생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미수로 그친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징역 6년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 징역 6년형이라—》

안경을 추스른 홍교수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심신미약자란 소릴 내 하지 않았던가?》

홍교수의 그 말에도 박준표는 대답할 말을 이미 준비해가지고 온듯싶었다.

《형법 제10조에서 처벌할수 없다고 규정한 심신장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범인은 삼륜차를 리용하여 비행장에 와서 범행목표로 설정한 <외교부> 장관을 정확히 가려본 점 그리고 사람을 능히 상해할수 있을 정도의 무게와 크기를 가진 돌을 머리높이까지 들어올렸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능력미약에 의한 감경사항으론 될지언정 심신장애로 인한 면죄사유로는 인정될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범행대상이 <외교부> 장관이고 범행장소와 시간이 공개적이며 기도한 범행수법이 로골적이고 무분별한것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커다란 외교적손실을 가져올번한것을 고려해볼 때 징역 6년형도 가벼울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박준표의 말이 끝나자 홍교수의 왼쪽볼이 씰룩거렸다. 그것은 마음이 흡족할 때마다 나타나군 하는 습관적인 동작이였다.

《생각을 많이 했구만. 그만 앉으시오. 박군은 징역

6년형도 오히려 가벼울수 있다고 선언했는데 여기까지에서 이의있는 사람?》

홍교수의 물음에 교실 한쪽구석에서 손 하나가 쑥 올랐다.

《말해보시오.》

손을 쳐든 학생은 배우건이다. 어느 무대연출가의 막내둥이라는 그는 장난기가 심한 축이였다.

《저어, 교수선생님. 나이 90이 지난 늙은이에게 징역 6년형은 너무 과한것 아닙니까?》

《그럼 학생은 어떤 판결이 마땅하다고 보오?》

그 물음에 배우건은 옆자리에 앉은 학생에게 눈을 끔뻑거리고 말을 계속 이었다.

《키싸스가 좋을것같습니다.》

《키싸스?》

《예, 이슬람교국가들에선 코란에 씌여진대로 키싸스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피해를 받은만큼 보복해주는거지요. <외교부> 장관더러 그 피고인한테 가서 속이 시원할때까지 돌을 들었다놓았다 하면서 위협해보라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 감옥에서 늙어죽을 사람도 없을것이며 공연히 여기서 머리썩을 일도 없을게 아닙니까.》

《하하하—》

난데없는 웃음판이 터졌다.

배우건이 눈을 부릅뜨고 돌로 까는듯한 흉내를 신통히 내는 바람에 학생들은 책으로 얼굴들을 가리고 너나없이 웃어댔다.

《학생, 앉으시오.》

손바닥으로 교탁을 치는 소리가 탕― 하고 났다.

홍교수는 어지간히 성이 난듯하였다.

《정숙, 정숙하시오. 형법전 첫머리에 씌여진 문구가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이 말은 성별과 종교는 물론 나이가 90이 지났건 못지났건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법앞에서 지게 되는 책임량은 꼭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첫째요. 그리고 둘째, 여기는 이슬람교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말이요. 형법적용원칙의 첫번째와 두번째 조항을 벌써 잊었소? 박군!》

《예.》

홍교수의 부름에 박준표가 다시 벌떡 일어섰다.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대해 말해보시오.》

《예, 범인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기 나라의 령역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자기 나라의 형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것이 속지주의이고 범인이 자기 나라사람인 이상 범죄수행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 나라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것이 속인주의입니다.》

《좋아, 박군에겐 가산점수를 주겠소. 하지만 배군에겐 주의를 한번 환기시키오! 자리에 앉소.》

홍교수의 큰소리에 배우건이 두손을 장난스레 펼쳐보인것을 내놓고는 교실안에 정숙이 깃들었다.

《오늘 과제검열에서는 박군이 모범이요. 박군, 자넨 지금 바로 나가 검사복 입어두 될것같구만. 괜찮아. 부장검사님의 아들이 과시 다르거던. 앞날이 촉망돼. 하

지만 일부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거던. 5급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어. 계속 그렇게 놀다간 앞으로 죽벌이도 못할줄 아시오. 하긴 그건 내 상관할바가 아니지. 제 밥그릇은 각자 알아서 잘 챙기도록. 그건 그렇구. … 자, 박군의 기소장랑독에 이의있는 사람?… 없소? 모두 같은 생각인가?》

손드는 학생이 없었다.

《아무도 없어? 기소가 있으면 변호가 따라야 하는데. 하긴 뭐 별로 그래봤자 승소가망은 없어뵈는 사건이니까 충분히 리해할수 있지. 그럼 좋아, 각자 준비해온 기소장들을 바치도록 하지.》

이렇게 말한 홍교수가 공연히 안경을 추스르며 책속에 눈길을 박는 그때 《저요. 이의있는데요.》 하는 소리가 별안간 교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어지간히 놀란 홍교수가 고개를 수긋하고 손이 들린 쪽을 안경너머로 넌지시 바라보았다.

《누구? 아, 모든것에 대해 항상 못마땅해하는 친구. 그럴줄 알았소. 반박이 없길래 난 자네가 오늘 결석한줄로만 알았지.》

손을 쳐든것은 다름아닌 민계식이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래, 말해보오.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런 기회를 배우건이 놓칠리 만무하였다.

《아마 형량일겁니다. 그게 지내 작다는건가? 하지만 미수죄로 목을 달아맬수야 없는노릇 아닙니까.》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조용하시오. 민군만 입을 열겠소.》

홍교수의 말에 민계식은 교실안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뜻밖에도 단호한 투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전 완전무죄를 주장합니다. 그 로인은 무죄입니다.》

순간 우우ㅡ 하고 벌떼 우는듯한 소리가 교실을 덮쳤다. 홍교수도 저으기 놀란듯 얼굴이 굳어져버렸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 교수의 입가에 흥미진진하다는듯한 표정이 천천히 떠돌기 시작했다.

《흠… 이런걸 흔히 반전이라고 하지. 변호사가 되려면 저쯤은 해야 돼. 눈앞에서 붙들린 살인범을 놓고서도 무죄판결 이끌어낼 담기가 있어야 하거던. 민군은 보아하니 변호사감이야. 하지만 우격다짐으론 안돼. 근거가 있어야지.》

의아함과 호기심, 비웃음의 눈길들이 민계식의 몸을 올리훑고 내리훑었다.

민계식은 큰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가방을 열고 그안에 한손을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불쑥 꺼내드는것이였다.

에크, 저게 뭐야? 저걸로 뭘 하려고?…

놀란 눈빛들이 민계식의 줌안에 쥐여진 돌멩이에 모여들었다.

천천히 머리우로 쳐들리우는 돌멩이를 따라 휘둥그래진 십여쌍의 눈동자들이 초점을 맞추었다.

《바로 여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옆에서 그 모양을 지켜보던 박준표가 가만히 민계식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취득한 록음물 같은것은 재판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될수 없어.》

무죄의 근거가 손에 든 돌멩이에 있다고 하니 그안에 무슨 소형록음기라도 장착되여있는줄로 아는 모양이였다.

민계식은 피씩 웃으며 그에게 말해주었다.

《록음기 같은건 없어. 이건 그냥 돌인걸.》

그리고는 다시 머리를 들고 홍교수와 자기를 주시하는 여러 학생들을 향해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니, 그냥 돌이 아니라 피고의 무죄를 증언해줄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난데없는 돌의 출현에 좌중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문득 교수의 목소리가 정적낀 방안에 파문을 일구었다.

《조금 당황스럽긴 해도 뭔가 독특한 면이 있구만. 그럼 박군의 기소장은 이미 들었으니 변호는 저 친구에게 맡기기로 하지. 기타 나머지 학생들은 기소인단이나 변호인단 등 각자 마음에 드는 역을 맡아 수행하도록. 판결은 내가 내리도록 하겠소. 실제 피고는 언어장애로 말을 못하니 있으나마나한거고. 그럼 민군, 피고석에 피고가 앉아있다 생각하고 변론을 시작하시오.》

《예.》

민계식은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숨을 고르었다.

조금 동안이 흐른 뒤 민계식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리기 시작하였다.

《변론에 앞서 한가지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에, 이 돌은 투석미수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로인의 손에 쥐여져 있던것과 거의나 동일한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 돌을 머리높이까지 쳐들었댔는데 저의 그런 행동에 위협을 느낀분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저도 특수폭행미수범인가요?》

홍교수의 눈짓을 받고 박준표가 입을 열었다.

《마땅한 동기가 있다면 범죄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자 민계식이 선선히 머리를 끄덕였다.

《옳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무엇을 들었는가가 아니라 왜 들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교수님은 20여년전에 동일한 사건장소에서 발생한 닭알투척사건을 상기시키셨는데 제가 과제수행을 위해 사건을 파악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때 일본행비행기를 타려던 <대통령>특사를 향해 붉은 뼁끼가 담긴 닭알을 투척했던 인물이 바로 얼마전에 <외교부> 장관에게 돌을 들고나섰던 유강산로인이라는겁니다.》

순간 놀라움에 찬 소음들이 교실안을 흔들었다.

《그땐 닭알을 날리구 오늘은 돌멩이를?!…》

《결국 전과자라는건가?…》

박준표가 참지 못하고 벌떡 몸을 일으켰다.

《민군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고는 형법 제264조 상습범처벌원칙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여 징역 9년형을 언

도받아야 마땅합니다.》

또다시 우—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홍교수가 교탁을 똑똑 두드리며 주의를 주었다.

《박군, 언권을 요구하지 않고 변론에 끼여드는 행위는 재판과정에서 용납될수 없소.》

《미안합니다, 교수선생님.》

박준표는 홍교수를 향해 머리를 숙여보였다.

《좋소, 이번 한번만 용서하겠소. 앉으시오.》

박준표가 자리에 앉기 바쁘게 뒤켠에서 배우건의 손이 불쑥 쳐들리였다.

《배군은 뭐요?》

《예.》

배우건은 옷매무시를 바로하며 정중한 자세로 입을 열었다.

《저어, 제 생각에는 이제 당장 기니스맥주회사에 련락해야 할것같습니다.》

《뭐라구? 자리에 앉아!》

탕— 하고 교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배군은 주의 세번이요.》

다시 교탁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하시오. 에, 여기는 모두 앞으로 법조인이 될 일념으로 그 준비과정을 밟고있는 학도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이요. 그러니 각자는 이동안에 각종 법률행위들에 대한 정확하고도 옳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뿐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기품까지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

오. 헌데 법에 의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과정을 신성시하지 못하는것은 법조인으로서의 품격과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로 되오. 정식재판이 아니라 모의재판이라 할지라도 법을 배우고있는 학도들로서는 응당 몸가짐을 바로하고 발언 하나하나도 심중히 해야 할것이요.》

잔기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교실안에선 오직 홍교수의 목소리만이 계속 울렸다.

《예, 기소측을 대표하여 박군은 앞서 요구했던 징역 6년형의 주장을 거두고 피고에게 징역 9년형을 언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였소. 변호사측 민군, 변론을 계속하시오.》

《예.》

민계식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검사측에서는 방금 유로인을 상습범으로 몰아붙였는데 이것은 사건에 대한 단순한 고찰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습니다. <움직이는것은 모두 다른 어떤것에 의하여 움직여지는것이다.>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을 상기해볼 때 저는 유로인의 그 모든 행동을 낳게 한 궁극적원인, 동기에 대한 다면적이며 해부학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여년전에 닭알을 들고나섰던 로인이 어찌하여 오늘은 그 손에 돌멩이를 들게 되였는가. 누가 그의 손에 돌을 쥐여주었으며 누가 그를 이 재판정의 피고석으로 몰아세웠는가. …이런것들은 모두 유로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반드시 해명되여야 할 부분들입

니다. 하여 저는 이 모든 의문점들에 답변을 줄수 있는 한 인간의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변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강산이 13살 나던 해 태평양전쟁을 치르고있던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몰려드는 련합군에 밀려 과달카날섬에 대한 방어를 포기하였다.

아시아의 《맹주》라던 일본군의 《옥쇄》소식이 련이어 날아들었다. 다음해에 일본은 마리아나해전에서 참패하였으며 난공불락이라고 떠들던 싸이판섬도 끝내는 함락당하였다.

패전의 기운은 점점 더 짙어갔다. 그해 겨울부터는 싸이판섬에서 출격한 《B－29》폭격기들이 일본본토에 폭탄을 마구 떨구기 시작하였다.

죽기 전 발악이 제일 심한 법이라고 왜왕의 숭배자들은 그야말로 미친것처럼 기광을 부렸다. 지주집 소년머슴이였던 어린 유강산이 영문도 모르고 징용에 끌려간게 바로 그해 겨울이였다.

왜놈경찰들은 주은 삭정이를 지게에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유강산을 띄여보고는 주재소 류치장으로 다짜고짜 끌어갔으며 다음날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부산행기차에 훌쩍 올려태우는것이였다.

기차에는 이미 많은 조선사람들이 끌려와있었는데 그들중에는 유강산처럼 10대의 소년들도 더러 보였다. 그들모두는 칼을 찬 순사들의 물샐틈없는 감시를 받고

있었다.

팔자에 없는 《죄인》이 되여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부산까지 강제압송된 그들은 다시 항에 집결된 수많은 조선사람들과 함께 관부련락선을 타고 시모노세끼로 끌려가게 되였다.

당시 놈들에 의해 짐짝처럼 선창에 처박히운 조선사람들은 끌려온 후 제대로 먹지도 못한데다가 파도가 심하여 모두가 게우고 설사하고 쓰러지다보니 선창안은 그야말로 짐승우리를 방불케 하였다.

끝내 몇사람이 몸부림을 치다가 정신을 잃었으며 그렇게 되자 왜놈들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끌어내여 날바다에 던져버렸다.

시모노세끼에서 수백명단위로 다시 편성된 징용자집단에 끼워 유강산은 다시 나가사끼로 강제수송되였으며 그들의 발걸음은 미쯔비시 하지메탄광이라는 곳에서 멈춰서게 되였다.

찬바람을 맞아 몸을 우들우들 떨어가며 눈속의 길을 찾아 겨우 도착한 그들을 맞이한것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왜놈감독의 일장연설이였다.

미쯔비시표식을 팔소매와 모자에 붙인 그 왜놈은 유강산이네가 공지에 들어서기 바쁘게 단우에 뛰여올라가서는 알아듣지 못할 왜나라말로 무엇인가를 그냥 쾌쳐대는것이였다. 그리고 마감에는 뒤쪽을 돌아보며 저희놈들에게 손짓을 해댔다.

모두의 눈길이 그쪽으로 쏠렸다.

조금 있더니 그쪽에서 뒤결박을 지은 조선사람 두명이 감독놈들에게 붙잡혀 끌려나왔다.

웅기중기 모여섰던 사람들속에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핏 귀동냥해 들으니 그들은 시모노세끼에서 도주하려다가 붙들린 사람들 같았다.

감독놈은 그들을 가리키며 또다시 뭐라고 왝왝 고아대였다. 도주하려 했기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소리치는것같았다.

갑자기 놈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악귀같은 감독놈들은 그 두사람의 옷을 벌거벗기더니 바줄로 발목을 비끄러매여 전주대에 거꾸로 매달고는 끝을 뾰족하게 깎은 참대창으로 그들의 배꼽을 푹푹 찌르는것이였다.

아우성소리가 터져나왔다.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눈이 덮였던 공지는 삽시에 끔찍스런 인간도살장으로 화하고말았다.

몸서리치는 만행에 넋을 잃은 징용자들을 왜놈들은 칼과 몽둥이로 위협하면서 시커먼 굴간으로 강제로 들이밀었다.

작업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하루 16～18시간 지어 어떤 날에는 20시간씩 강요되는 중로동에 몸이 허약하고 기력이 딸리는 사람들은 흑사병이라도 만난것처럼 무리로 죽어나갔다.

짐승사료로도 쓰지 못할 곰팽이가 낀 콩깨묵에 썩은 보리쌀을 섞어 만든 한덩이의 밥에 절인 무우 두세쪼각과 멀건 소금국이 그들의 한끼 식사량의 전부였다.

왜놈들은 그것을 돼지먹이로도 쓰지 않았다. 돼지들한테 그것을 먹였다가 죄다 영양실조에 걸려 죽었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징용자들에게는 그나마도 변변히 차례지지 않았다. 감독놈들은 꾀병을 부린다거나 일을 잘 안한다거나 굼뜨다거나 하는 식의 이러저러한 트집을 걸면서 걸핏하면 끼니를 굶겼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한갖 소모품 같은것으로밖에 취급되지 않았던 징용자들은 해골처럼 되여버린 몸으로 매일 수십메터의 땅속에서 탄을 캐여 날라야만 하였다.

놈들에게는 인정사정이 끄물만큼도 없었다. 동상을 입어 퉁퉁 부은 맨발로 힘에 버거운 탄차를 밀다가 찌르는듯한 아픔을 참느라고 잠깐 서있을라치면 즉시에 달려와서 어린 유강산의 발등을 곡괭이자루로 쿡쿡 내리찍었다.

《아픈가, 아프다는것은 아직 신경이 살아있다는것이고 신경이 살아있다는것은 아직 일을 할수 있다는것이다. 꾀병이나 하지 말고 빨리빨리 일하라.》

그다음은 영낙없이 왜놈감독놈의 사정없는 매질이 시작되군 하였다.

놈들은 유강산을 비롯한 징용에 끌려온 조선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한 벌레처럼 여기였으며 《센징》은 오직 매로 다스려야 한다고 공공연히 뇌까리면서 저들의 눈에 거슬리면 그 자리에서 때려죽이는짓도 서슴지 않았다.

온몸이 쪼그라드는 지옥같은 곳에서 왜놈들에 의해

강요당한 2년간의 중로동으로 유강산은 신경쇠약에 폐염을 앓았으며 10대에 경추가 휘여들었고 락반에 치여 척추가 부러졌다. 하여 그는 일생을 불구로 고통받아오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

《과거 일본이 유로인에게 끼친 정신육체적피해는 실로 엄청납니다. 유강산로인뿐 아니라 강제련행되여 끌려갔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수많은 동포들이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원한의 상처를 안고 지금껏 버텨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제가 저지른 만행의 피해자들입니다.

때문에 유로인을 비롯한 강제련행피해자들은 과거 일본으로부터 당한 모든 정신육체적피해에 대하여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해준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을 향해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웨쳐온 수많은 강제련행피해자들에게 력대 <정부>가 한 일들을 돌이켜보십시오.

박정희<정부>는 3억US$를 얻어쓰겠다고 대일청구권전부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로태우<정부>나 김영삼<정부>도 결코 짝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정부>에 와서는 그 무슨 <강제징용자, 위안부문제의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해결>이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였습니다.

당시 인구 2천만이였던 우리 나라에서 840만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랍치,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쟁판과 공사판들로 끌어갔고 짐승처럼 때리고 죽이고 모욕하고 상해를 입힌 왜놈들을 향해 언제 한번 <정부>는 소리높이 꾸짖은적이 없었으며 하나같이 비굴하고 굴욕적이기만 하였습니다.

현 윤석열<정부>는 또 어떤가요? 지난 2018년 사회의 여론과 거세찬 압력에 못이겨 일본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친일구걸에 환장한 윤석열<정부>는 일본전범기업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전액을 기꺼이 대신 물어주겠으니 제발 관계개선을 허락해달라고 손이야 발이야 비는 추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긴 <대통령>이 되자바람부터 곱새처럼 허리를 구부린채 부득부득 일본대사를 찾아가 <리념편향적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일본과의 협력>을 거리낌없이 제창해나서다 못해 나중에는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징용문제를 일본과의 <안보, 경제, 무역협력> 등과 맞바꾸어야 한다는 식의 이른바 <그랜드바겐>(<일괄타결안>)이라는것까지 늘어놓아 여론의 뭇매질을 당했던것이 현 <대통령>이고보면 그것이 뭐 별로 이상할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죽했으면 <매국노 리완용을 뛰여넘은 특등매국노>라는 점잖지 못한 별명까지 받았을가요. 아마 현 <대통령>의 머리속에는 일본이 죄짓

고도 발뺌하는 뻔뻔스런 전범국이 아니라 <보편적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이고 <협력동반자>라는 얼빠진 생각만이 꽉 들어찬 모양입니다.

이런 <정부>가 누구의 립장에서 누구의 리익을 대변하여 누구를 짓밟을것인지는 불을 보듯 명백한것입니다.

이 돌을 보십시오. 이 땅 그 어디에나 흔한 이 돌멩이를 좀 보십시오.

모진 발길에 걷어채우고서도, 비바람부는 길가에 나딩굴면서도 하소연 한마디 못한채, 가슴속에 원한을 품어안은채 웅크리고있는 이 차가운 돌멩이는 마치도 <정부>에도 외면당하고 <법>에도 랭대당하며 막돌같은 인생을 살아온 유로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피멍들린 한도 풀지 못하고 이제는 백발로 늙어가는 피해자들의 모습 그대로란 말입니다.

바로 유로인이 쳐들었던 그 돌멩이속에는 조그마한 위로조차 받지 못한채 구천에서 헤매는 원혼들의 울부짖음소리가 간직되여있으며 친일에 환장이 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격을 마구 짓밟고 막돌처럼 차던진 윤석열<정부>를 질타하는 분노의 함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분노로 치를 떠는 무고한 이 땅의 피해자들의 절규를 들려주어 더는 민족앞에 수치스럽고 죄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 유로인은 비행장으로 갔던것입니다.

이런 그가 무슨 죄인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아흔살 난

병약한 로인이 힘겹게 쳐들어올렸던 그 돌멩이가 <외무부> 장관의 면상에 던져지기라도 한것처럼 현실을 과장확대하여 엄중한 범죄로까지 몰아가고있으며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주저없이 울려나오고있습니다. 지어 <전과자>이므로 중형을 언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습니다.

옳습니다. 죄를 범한 피고는 마땅히 그 죄값을 치르어야 합니다.

하다면 지금 이 <법정>에서 정말로 죄값을 치르어야 할 진짜피고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겁니다.

한 인간을 불구로 만들어 그의 인생전부를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은, 아니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수백만 조선사람들의 생명을 무참히 유린했던 전범국 일본과 그의 대변자, 충실한 노복들이 지금 이 <법정>에서는 원고의 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사죄를 받아야 하고 배상을 받아야 할 진짜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석으로 내몰려 <죄인>취급을 받고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정>을 념불처럼 외우는 이 땅의 <법정>의 모습입니다. 불의가 정의를 단죄하고 사대와 매국이 자주와 애국을 심판하는 <대한민국 법정>의 진모습이란 말입니다!

언젠가 한 량심인이 터치던 분노의 절규가 생각납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선 민족반역이 죄가 되지 않는가?>

그럴수 없습니다. 민족반역은 죄가 되여 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민족의 쓰라린 과거를 무시하고 겨레를 모욕하는 원쑤들과 몸뚱이를 부비며 돌아치는 민족반역자들은 마땅히 이 땅에서 죄인으로 선고되여야 하며 피고석에는 응당 그런자들이 앉아야 할것입니다.》

못다 터친 울분과 격정으로 하여 민계식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있었다.

숨가쁜 침묵이 교실을 짓누르고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비장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느닷없이 터져나온 《햄리트》의 명대사에 수십쌍의 눈동자들이 모두 약속이나 한듯 뒤를 돌아보았다.

언제 일어났는지 평소의 장난기와 익살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침울한 표정으로 배우건이 서있었다.

좌중을 무겁게 둘러보던 그의 입이 다시 열리자 이번엔 뢰성같은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반일이냐 친일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장내는 배우건의 그 웨침소리에 위압된듯 물을 뿌린것처럼 조용해졌다. 숨막힐듯한 침묵이 시공간을 꽉 채웠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누군가가 치는 박수소리에 련달아 여기저기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민계식이 잘한다.》, 《배우건이 잘한다.》는 환성이 장내를 진감했다.

박준표와 홍교수의 얼굴은 삽시에 돌처럼 굳어져버렸다.

불길이 황황 이는 눈길로 그들을 지켜보던 배우건도 보란듯이 민계식을 향해 박수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창밖에서 아까부터 우릉거리던 비구름이 대줄기같은 소낙비를 퍼붓기 시작했다. 우뢰소리에 창유리마저 덜덜 떨렸다.

억울하게 죽어간 령혼들의 절규인가, 죄지은 무리들을 심판하는 하늘의 노성인가 장대비소리는 점점 더 세차게 포석을 두드리며 지심을 울렸다.

작품집

사랑이 넘치는 땅

편 집 최은정 편 성 김일미
장 정 김영희 교 정 주설미

내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2(2023)년 10월 16일
발 행 주체112(2023)년 10월 19일

ㄱ－1635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2023, DPR Korea
ISBN 978-9946-31-179-1

ISBN 978-9946-31-179-1
9 789946 311791